

안세영·서승재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 영예

안, 출전 16개 대회서 11회 우승
"완벽한 엔딩...이보다 좋을순 없다"

서, 혼복·남복 두 부문 활약 인정
"혼자 아닌 파트너들과 이룬 성과"

안세영(21)과 서승재(26·이상 삼성생명)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선수로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안세영과 서승재는 11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시상식에서 각각 올해의 여자 선수상과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BWF 올해의 선수상은 그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며 남자, 여자, 복식 부문을 비롯해 기량 발전상, 신인상 등에 대한 수상이 이뤄진다.

평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거둔 성적에 바탕으로 이뤄진다.

광주체고 출신의 안세영은 전영오픈, 세계개인선수권,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회를 휩쓸면서 평가 기간 16개 대회에서 11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압도적인 질주를 펼친 그는 1996년 방수현 이후 한국 선수로 7년 만에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여자단식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 후환'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난적' 천위페이(중국)과의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지만 끝까지 라켓을 놓지 않고 후환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이 1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한 뒤 한쪽 팔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은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은 서승재. (세계배드민턴연맹 제공)

안세영은 귀국 후 병원 검진 결과 무릎 근처 힘줄이 찢어졌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낸 뒤 11월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일본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경기를 통해 39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안세영은 시상식에서 "제게 정말 행복한 날이다"

라고 소감을 밝히며,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완벽한 마무리를 한 것 같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유정(28·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복식 부문 후보에도 선정됐던 서승재는 혼합복식과 남자복식 두 부문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올해의 남자 선수가 됐다.



서승재는 채유정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에서는 세계 랭킹 3위, 강민혁(삼성생명)과 조를 이룬 남자복식에서는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승재는 지난 8월 세계개인선수권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정상에 오르며 2관왕에 등극했고, 전영오픈 혼합복식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혼합복식에서 채유정과 동메달을 합작

했다.

서승재는 "이런 상을 받게 돼 정말 영광이다"라며 "저 혼자 아닌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큰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옆에서 지켜봐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메시

내년 2월 '메호대전'

사우디 친선대회서 메시의 마이애미-호날두 알나스르 맞대결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메호대전'이 새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진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는 내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인 리야드 시즌컵에 참가한다고 12일 구단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발표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내년 1월 29일 알힐랄, 2월 1일 알나스르와 차례로 대결한다.

이에 따라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 1월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었고, 현재 사우디 프로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메시는 지난 7월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 팀을 리그스텝 우승으로 이끌었다.

10년 넘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호날두와 메시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35차례 맞대결을 펼쳤다. 메시가 16차례, 호날두가 10차례 승리했으며, 9경기는 무승부였다.

이들 경기에서 메시는 21골 12도움을, 호날두는 20골 1도움을 올렸다.

마지막 메호대전은 지난 1월 사우디 올스타팀과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의 친선경기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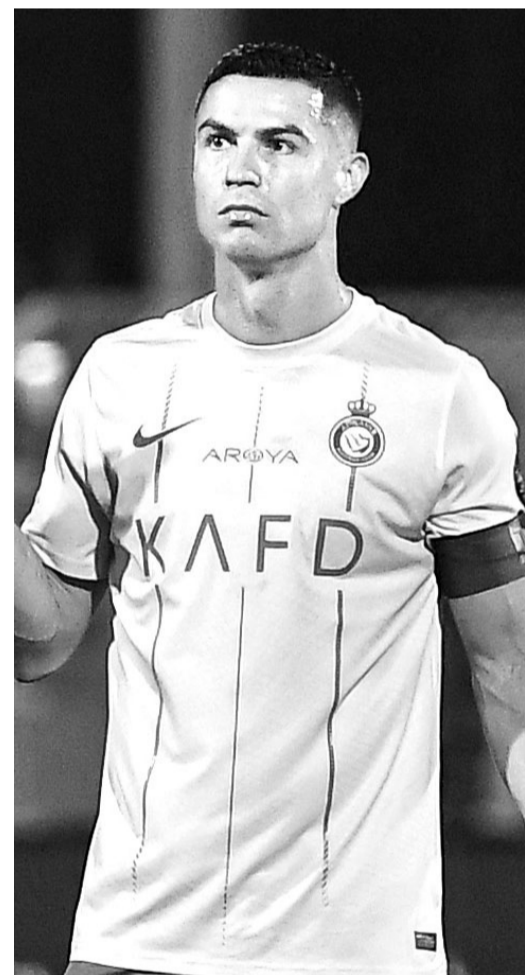
PSG 소속이던 메시와 올스타팀의 일원으로 출전한 호날두 모두 골 맛을 봤고, 결과는 PSG의 5-4 승리였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유력 통신사인 AFP가 메시의 사우디 리그 이적을 보도해 사우디 리그에서 메호대전이 다시 펼쳐지기를 원했으나,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하면서 그런 일이 됐다.

한편, 인터 마이애미의 이번 리야드 시즌컵 참가는 지난달 21일 사우디 측에서 발표했다. 당시에는 인터 마이애미 측이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부인한 바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새 시즌이 내년 2월 말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프리시즌에 리야드 시즌컵 외에도 1월 19일 엘살바도르 대표팀과 경기, 2월 4일 홍콩에서 열리는 경기 등 2경기를 더 소화한다.

2018년 창단한 인터 마이애미가 프리시즌 투어를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호날두

여자프로농구 박지수 1·2라운드 MVP 석권

박지수(KB·사진)가 2023-2024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에이ئر2라운드에서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이번 시즌 2라운드 MVP를 뽑는 언론사 기자단 투표에서 박지수가 95표 중 86표를 받아 7표의 김단비(우리은행)를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수는 2라운드 5경기에 출전해 평균 29분 11초를 뛰며 평균 19.6득점, 리바운드 15.4개, 어시스트 4.0개, 블록슛 1.8개의 성적을 냈다.

박지수의 활약 속에 7연승을 달린 KB는 1위 야산 우리은행에 0.5경기차 뒤진 2위에 위치했다.

지난 1라운드에서도 MVP를 수상한 박지수는 2라운드도 제패하며 개인 통산 열다섯 번째 MVP의 영예를 안았다.

WKBL 심판부와 경기 운영 요원이 뽑는 기량발전상(MIP)은 이주연(삼성생명)이 받았다.

이주연은 평균 7.5득점, 리바운드 5.0개, 어시스트 3.3개, 스틸 2.0개, 3점슛 성공률 33.3%를 기록했다.

이주연은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라운드 MIP에 선정돼, 김지영(신한은행·4회)을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김천 상무 K리그1 승격 이끈 '말년 병장들' 전역

신승훈 등 9명 원소속팀으로

프로축구 김천 상무의 K리그1 승격에 앞장선 '말년 병장'들이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김천 구단은 12일 "신승훈, 김문성, 김준범, 문경

권, 윤석주, 이준석, 이지훈, 임승겸, 최병찬 등 9명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늘 전역해 원소속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은 '김천 6기'인 이유현은 코로나19 탓에 동기들보다 늦게 입대한 까닭에 오는 30일 전역

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의 선수는 하나원큐 K리그2(2부) 2023 우승 멤버다.

특히 광주FC의 신승훈은 말년 휴가까지 반납하는 헌신으로 우승에 이바지했다.

2022시즌엔 1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신승훈은 2023시즌 17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골키퍼로 거듭났다. K리그 통산 출전 수 18경기 중 17경기를 김

천에서 작성했다.

신승훈 외에도 김문성, 이준석, 이유현이 자신의 한 시즌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프로 선수로 거듭났다.

김문성은 10경기 2도움을 올렸고, 이유현은 19경기에 나서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이준석은 22경기 6골 3도움으로 팀 내 득점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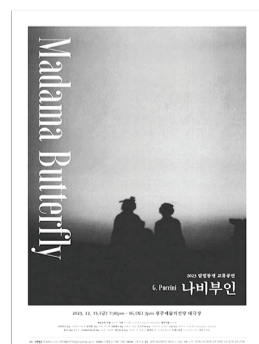
- 1관 서울의 봄
- 2관 서울의 봄
- 3관 쏘우 X, 비밀
- 4관 서울의 봄, 바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 5관 서울의 봄, 3일의 휴가
- 6관 서울의 봄
- 9관 3일의 휴가
- 7관씨네커피 말하고 싶은 비밀, 배트맨, 노 엑시트
- 8관씨네커피 싱글 인 서울, 나폴레옹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즐거움
문화
산책